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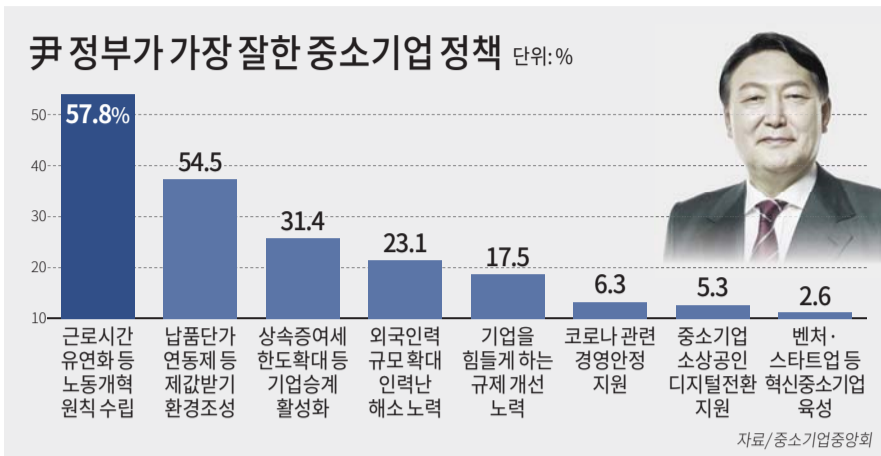
중소 78%, “尹정부 정책 만족”... 1위로 ‘노동개혁’ 꼽아

중기중앙회, 정부 정책 만족도 조사 ‘근로시간 유연화 원칙 수립’ 최고 평가 최우선·중점 추진 과제도 ‘노동 정책’

중소기업 10곳 중 8곳 가량(77.6%)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 정책에 가장 만족했으며, 최우선 해결과제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도 노동 분야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6.4%, ‘만족’으



로 답한 기업은 51.2%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 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

(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도 ‘경직된 노동시장’(40.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18.5%), ‘과도한 규제’(1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윤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 역시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복수응답)는 ‘인력난 심화’(48.5%)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45.9%), ‘원자재 값 인상’(4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

적으로 평가(매우 긍정적 50.5%+긍정적 34.3%)했다.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의 순으로 긍정 평가 이유라고 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이 윈윈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르노코리아, 부산지역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나선다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투자기로 부산공장 내 에코 클러스터 센터 조성 상생 협력 강화 및 인력 양성 등 추진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부산지역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센터를 세운다.

르노코리아는 22일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부울경지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부산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위한 르노코리아, 부산시 및 관련 기관들의 세부 사항 이행을 위한 각각의 역할도 이번 업무협약에 포함됐다.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 내 ‘에코 클러스터 센터’를 신설하고 지역 대학, 연구기관 및 자동차 부품기업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상생과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



김형준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왼쪽부터), 이임건 부울경지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 오린테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2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학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르노코리아차

다. 부산시는 미래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 양성 및 관련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각종 행정 지원 등 미래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은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단지 구축 및

원활한 부품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부울경지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는 맞춤형 교과를 신설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차 산업분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향후 에코 클러스터 센터 운영을 통해 미래차 산업 분야

의 산학연 협력기반 인력 양성 및 연구 개발 협력 기반을 구축해 갈 예정이다.

르노코리아스τέ판 드블레즈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학이 협력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에코 클러스터 센터가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과 더불어 부산 지역의 성공적인 미래 친환경차 산업 전환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향후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미래 친환경차 산업 관련 후속 지원 방안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 대표기업으로서 르노코리아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앞으로도 부산의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르노코리아는 미래 친환경차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2024년 출시 예정인 하이브리드 중형 SUV 신차 개발과 생산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관련 사이버 범죄 활동 급증.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 시그널 공개 업무용 이메일 공격 하루 평균 15.6만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간 탐지된 업무용 이메일 침해(BEC) 시도가 350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5만6000건의 침해 시도가 발생한 셈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2일 사이버 위협 보고서 ‘사이버 시그널’ 에디션을 공개하고 이같은 BEC 공격 동향을 발표했다.

MS의 위협 인텔리전스 디지털범죄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500만건의 업무용 이메일 침해 시도를 탐지하고 조사했다. 또한 업무용 이메일을 노리는 ‘서비스형 사이버범죄’는 2019년 대비 38% 증가했다.

BEC 공격자들은 매일 쏟아지는 이메일 트래픽과 메시지를 악용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금융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죄자의 사기 송금에 활용되는 자금 운반책 계좌로 무의식적인 송금을 하도록 유도한다.

인중요정보 메시지를 스푸핑하거나 개인이나 회사를 사칭하는 것도 일반적인 수법이다.

MS는 기업이 BEC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AI 기능이 탑재된 이메일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면, 고급 피싱 방지, 의심스러운 포워딩 탐지 등의 기능을 통해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메일 및 생성성 클라우드 앱은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앙화된 보안 정책 관리 등의 이점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성수기 피해 ‘이른 여름휴가족’ 늘어난다 구글플레이, 앱·게임 개발사 100곳 지원

알뜰한 여행 떠나는 스마트 소비자

비용을 아끼거나 번잡함을 피해 일찍 여름휴가를 떠나는 이른바 ‘이른 여름휴가족’이 올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스마트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 떠나는 여름 휴가족’ 트렌드는 코로나 이전부터 꾸준히 확산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집계한 우리나라 국민의 출국자수 통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비수기로 꼽히던 6월 출국자 수가 큰 증가세를 보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9년 5개년 간 6월 중 우리나라 국민의 월별 출국자수는 연평균 12.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연도별 연평균 증가율인 8.3%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대표적인 성수기 기간인 7월(9.5%)과 8월(5.8%)의 증가율 보다도 훨씬 높았다.

이 같은 트렌드는 지난 4월 제주항공이 자사 SNS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 중의 42%가 여름 성수기인 7~8월을 피해 5·6·9·10월에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성수기를 피해 휴가를 떠나겠다고 응답한 52%가 ‘여름 성수기(7~8월)에는 여행 비용이 비싸서’ 해당 시기를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6월 휴가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호찌민, 일본 오이타 노선에 대한 항공권 프로모션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작년보다 20개사 늘려 역대 최대

구글플레이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내 중소기업 개발사 및 스타트업 상생 지원 프로그램 ‘창구 프로그램 5기’에 참여할 100개사를 선정하고 개발사 지원 여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된 개발사 가운데 개인화 뷰티 큐레이션 서비스 ‘잼페이스’, 영토 확장 캐주얼 게임 ‘아이들킹덤즈’, 반려식물 종합 솔루션 ‘그루우’가 톱3로 이름을 올렸다. 잼페이스와 그루우는 AI기반의 스타트업이다.

창구 프로그램은 창업의 ‘창’과 구글플레이의 ‘구’ 앞자에서 이름을 따왔다. 올해 5기를 맞아 작년보다 20개사가 추가된 역대 최대 규모의 100개 개발사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콘텐츠완성

도, 혁신성, 해외 진출 가능성이었다. 서류 평가, 앱 콘텐츠 시연 평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올해는 게임, 웰니스, 헬스케어, 예술, P2P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 개발사가 참여한다.

창구 프로그램은 2019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360개사가 참여했다. 3기까지 누적 매출이 62% 증가하고 유치 투자액이 2000억원을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구글플레이는 창구 프로그램 5기에 선정된 100개 개발사에게 사업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캠페인 운영을 지원하는 마케팅·홍보와 함께 창업 성장지원 세미나, UA 마케팅 광고 수익화를 위한 일대일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